

[성지주일] 수 난 복 음 다 해 (짧은 복음)

루카 23, 1 - 49



루 카 가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.



그 때 에 백 성 의 원 로 단, 곧 수 석 사 제 들 과 율 법 학 자 들 이



일 어 나 예 수 님 을 빌 라 도 앞 으 로 끌 고 갔 다. 그 리 고 예 수 님



을 고 소 하 기 시 작 하 였 다. ["우 리 는 이 자 가 우 리 민 족 을 선 동



한 다 는 사 실 을 알 아 냈 습 니 다. 황 제 에 게 세 금 을 내 지 못 하 게



막 고 자 신 을 메 시 아 곧 임 금 이 라 고 말 합 니 다."] 빌 라 도 가



예 수 님 께 물 었 다. ["당 신 이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오?"] 예 수 님



께 서 대 답 하 셴 다. ["네 가 그 령 게 말 하 고 있 다."] 빌 라 도 가



수 석 사 제 들 과 군 중 에 게 말 하 였 다. ["나 는 이 사 람 에 게 서

(해설자)
아 무 죄 목 도 찾 지 못 하 겠 소."] 그 러 나 그 들 은 완 강 히 주 장

(다른사람)
하 였 다. ["이 자 는 갈 린 래 아 에서 시 작 하 여 이 곳 에 이 르 기

까 지, 온 유 다 곳 곳 에서 백 성 을 가르 치 며 선 동 하

(해설자)
고 있 습 니 다."] 이 말 을 들 은 빌 라 도 는 이 사 람 이 갈 린 래

아 사 람 이 냐 고 문 더 니, 예 수 님 께 서 헤 로 데 의 관 할 에 속 한

것 을 알 고 그 분 을 헤 로 데 에 게 보 냈 다. 그 무 렵 헤 로 데 도

예 루 살 렘 에 있 었 다. 헤 로 데 는 예 수 님 을 보 고 매 우 기 빠

하 였 다. 예 수 님 의 소 문 을 들 고 오 래 전 부 터 그 분 을 보 고

싫 어 하 였 을 뿐 만 아 니 라, 그 분 께 서 일 으 키 시 는 어 떻 표 징



이 라 도 보 기 를 기 대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. 그 래 서 헤 로 데 가



이 것 저 것 물 었 지 만, 예 수 님 께 서 는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으



셨 다. 수 석 사 제 들 과 율 법 학 자 들 은 그 곁 에 서 서 예 수



님 을 신 랄 하 게 고 소 하 였 다. 헤 로 데 도 자 기 군 사 들 과 함 께



예 수 님 을 업 신 여 기 고 조 롱 한 다 음, 화 려 한 옷 을 입 혀 빌 라



도 에 게 돌 려 보 냈 다. 전 에 는 서 로 원 수 로 지 내 던 헤 로 데



와 빌 라 도 가 바 로 그 날 에 서 로 친 구 가 되 었 다. 빌 라 도 는



수 석 사 제 들 과 지 도 자 들 과 백 성 을 불 러 모 아 그 들 에 게



말 하 였 다. [“여 러 분 은 이 사 람 이 백 성 을 선 동 한 다 고 나



에 게 끌 고 왔 는 데, 보 다 시 피 내 가 여 러 분 앞 에 서 신 문 해



보 았 지 만, 이 사 람 에 게 서 여 러 분 이 고 소 한 죄 목 을 하



나 도 찾 지 못 하 였 소. 헤 로 데 가 이 사 람 을 우 리 에 게 돌 려



보 낸 것 을 보 면 그 도 찾 지 못 한 것 이 오. 보 다 시 피 이 사



람 은 사 형 을 받 아 마 땅 한 짓 을 하 나 도 저 지 르 지 았 소.



그 러 니 이 사 람 에 게 매 질 이 나 하 고 풀 어 주 겠 소."] 수 석 사 제

(해설자)



들 과 지 도 자 들 과 백 성 은 일 제 히 소 리 를 질 렸 다. ["그 자 는

(회중)



없 애 고 바 라 빠 를 풀 어 주 시 오."] 바 라 빠 는 예 루 살 렘 에 서

(해설자)



일 어 난 반 란 과 살 인 으 로 감 옥 에 갇 혀 있 던 자 였 다.



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



기 하였지만,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.



["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"]



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. ["도 대체 이 사람이



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? 나는 이 사람에게서



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. 그래서



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."] 그러자 그들이



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



하는데,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. 마침내 빌라도는



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로 결정하였다. 그리하여 그는



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



대로 풀어 주고,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 주



었다.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, 시골에서 오고 있던



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



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.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



따라갔다.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



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.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



돌아서서 이르셨다. ["예루살렘의 딸들아, 나 때문에 울지



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올라. 보라, '아이를



낳지 못하는 여자, 아이를 배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



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!'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.



그 때에 사람들은 '산들에게 '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.' 하고



언덕들에게 '우리를 덮어다오.' 할 것이다. 푸른 나무가



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?"]

(해설자)



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



갔다. '해골'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



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,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



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.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

(그리스도)



셨다. ["아버지,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. 저들은 자기

(해설자)



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."]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



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겹옷을 나누어 가졌다.



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.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

(다른사람)



거렸다. ["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 하였으니, 정말 하느



님의 메시아,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."]

(해설자)



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. 그들은 예수님께다가

(다른사람)



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. ["네 가유다인들의 입금이



라 면 너 자 신 이 나 구 원 해 보 아 라."] 예 수 님 의 머 리 위 에 는



'이 자 는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다.' 라는 죄 명 패 가 붙 어 있 었 다.



예 수 님 과 함 께 매 달 린 죄 수 하 나 도 그 분 을 모 독 하 였 다.



["당 신 은 메 시 아 가 아 니 시 오? 당 신 자 신 과 우 리 를 구 원



해 보 시 오."] 그 러 나 다 른 죄 수 는 그 를 꾸 짓 으 며 말 하 였 다.



["갈 이 처 형 을 받 는 주 제 에 너 는 하 느 님 이 두 렵 지 도 않 으 냐?



우 리 야 당 연 히 우 리 가 저 지 른 짓 에 합 당 한 벌 을 받 지 만,



이 분 은 아 무 런 잘 못 도 하 지 않 으 셧 다."] 그 러 고 나 서 그 죄 수



가 예 수 님 께 간 청 하 였 다. ["예 수 님, 선 생 님 의 나 라 에 들 어

(해설자)
가 실 때 저 를 기 억 해 주 십 시 오."] 예 수 님 께 서 그 에 게 이 르

(그리스도)
셨 다. [" 내 가 진 실 로 너 에 게 말 한 다. 너 는 오 늘 나 와 함 께

(해설자)
낙 원 에 있 을 것 이 다."] 낮 열 두 시 즘 되 자 어 둠 이 온 땅 에

덮 여 오 후 세 시 까 지 계 속 되 었 다. 해 가 어 두 워 진 것 이 다.

그 때 에 성 전 휘 장 한 가 운 데 가 두 갈 래 로 찢 어 졌 다.

(그리스도)
그 리 고 예 수 님 께 서 큰 소 리 로 외 치 셧 다. [" 아 버 지, ' 제 영 을

(해설자)
아 버 지 손 에 맡 기 니 다."] 예 수 님 께 서 는 이 말 씀 을 하 시

고 숨 을 거 두 셧 다.

[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]



(해설자)

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

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하였다. ["정 - 녕 이 사 람 은 의 로 운 분 이 셧 다."] 구경하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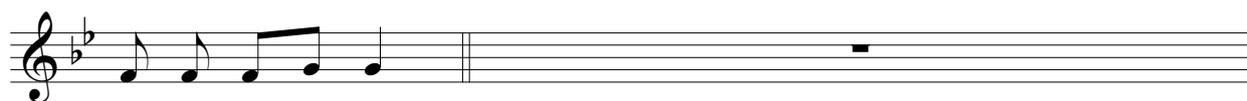
몰려 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



돌아갔다.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



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



켜 보았 - 다.



(해설자)

(회중)

주님의 말 - 씬 입 니 다. 그 리 - - 스 도 - 님 찬 미 합 니 다.